



스물여섯번째 이야기

수련회를 다녀와서

로마서 서빙고 목요저녁반 김성민 / 2016-11-17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와 열정적인 예배, 그리고 일본 러브소나타 참가로 나의 감동은 점점 더해지고 은혜가 충만케 될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나의 영적인 갈구함은 충족 되어 갔다. 그리고 결국 온누리 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 이런 지난 과정들이 지금 주마등처럼 나의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PSP 선교훈련을 받으며 하나님의 관점을 깨우쳤고, DTS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다져나갔다. 또한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동반자의 영적성장과 함께 나의 신앙도 성장해갔다. 교회 내에 모든 양육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두란노 성경연구학과 등 닥치는대로 배우고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힘써왔다, 그런데 아쉽게도 매년 비코리아에서 개강되는 양육 프로그램은 등록을 못했다. 사실은 두란노 기독교 영성학과 수강중이었고 수업료가 너무 비싸 망서리다 학기를 놓쳐버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올해엔 기적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BEE 과정을 만나게 되었다. 온비아 갈라디아서/로마서는 OBC등에서 이미 배운 과목들이지만 또 새로운 분들이 모이고 좋은 인도자님을 만나게 되니 역시 쉬지 않고 공부함이 얼마나 고귀한 하나님의 선물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갈라디아서 과정이 순식간에 끝나고 수련회를 앞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배운 것을 주제로 연극을 하여야 된다는 것! 우리 반의 훌륭한 분들에 의해 콘티가 짜여지고 각자 배역을 맡고 연습을 했다. 흰머리에 나이 먹은 나는 바울 사도 역을 맡게 되니, 평소 '바울 신학과 함께 살고 함께 죽으리라' 한 나에게 주어진 은혜임에 열심히 대사를 익히고 리허설도 했다. 수련회 시작을 앞두고 연습을 위해 모인 우리 팀, 특히 아름답고 신실한 분들이 모인 반이라 일등상에 대한 기대가 컸다. 점프샷을 찍자는 아이디어로 사진 촬영을 하여 제출하고 마침내 차례대로 발표

회를 가지는데 예상외로 의상과 무대를 열정적으로 준비해 오신 팀들이 많았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발표의 시간 후 저녁식사를 마치고 이제 기대하던 성령수련회 예배시간이다. 열정적인 찬양과 기도도에 이어 박성은 목사님께서 에스겔 36장 27절의 말씀, "돌 같이 굳은 마음에서 살 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를 선포하시고 근래에 이루어진 기적과 같은 치유사역에 대한 간증을 이어가심에 이미 나의 영은 갈급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열심히 간구하고 있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팔로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의 영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애타게 울부짖는 나의 영과 혼과 육신이 하나 되어 온 몸으로 처절하리만치 소망하니 때맞추어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원하는 분들을 단으로 콜링 하시는 것이었다. 예전엔 이런 시간에 적극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미 나에게 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또 그분의 역사하심이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에 추호의 의심도 없는 상태로 강단에 나아가니 목사님의 손이 나의 이마에 닿자마자 나의 영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지는 가운데 나의 육신은 힘이 빠져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누워진다.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변해 나의 영을 채우고 나의 심령을 위로하고 나의 세포 곳곳에 스며드니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넘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를 사랑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충만한 나날 되게 하소서!" 하며 감사의 기도를 읊조리게 된다.

예배를 마치고 반별 나눔 시간에 또 목사님과 비코리아의 핵심 인도자님들과 함께 하는 은혜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 후 취침시간에도 잠들지 못하고 각자의 신앙에 대한 간증들을 밤늦게까지 나누었으니 실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모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주시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었다. 다음 날의 주일예배와 비 코리아의 소개 시간을 통해 막연히 성경공부 열심히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비 코리아의 사역이 세계 곳곳 온갖 열악하고 복음화 되지 못한 곳까지 우리의 훌륭한 인도자님들에 의해 개인적인 헌신으로 설 새 없이 세미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실로 놀라운 감동으로 다가 왔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들의 살아있는 모습을 이렇게 수련회를 통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수련회였음을 수줍게? 고백한다.



김성민 프로필

1957년생

2008 러브소나타 참가 후 온누리 서빙고 등록

마포공동체 안수집사

길 공동체 청년부 멘토, 서빙고 순장학교 간사 섬김

BEE 소식

- 11월 26일 토요일도모임 후 2016년 2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모든 비 회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 11월 22일 신동준선교사님 가족이 가나로 출국하였습니다.
- 12월12일 저녁 한동홀에서 Blessing BEE Korea 행사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내년을 기도로 준비합니다.